

목 차

들어가는 말

들어가는 말	2
--------------	---

[정책제언] 서민금융정책 개선방안

서민금융정책 개선방안	
- 미소금융·햇살론·희망홀씨를 중심으로	7

[간담회]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성화를 위한 미소금융 혁신방안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정립을 위한 과제	31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한 미소금융의 역할 재정립	42
마이크로파이낸스 활성화를 위한 미소금융 혁신방안	48
미소금융 현장의 목소리	53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발전방향과 미소금융의 역할	57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권택기입니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던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발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도 기회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세계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고, 올 11월에는 세계 경제 선도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어 전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을 찾게 됩니다. 변두리로만 여겨졌던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을 이끄는 중심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 역시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하나씩 고쳐나가고,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 그늘진 곳에 밝은 빛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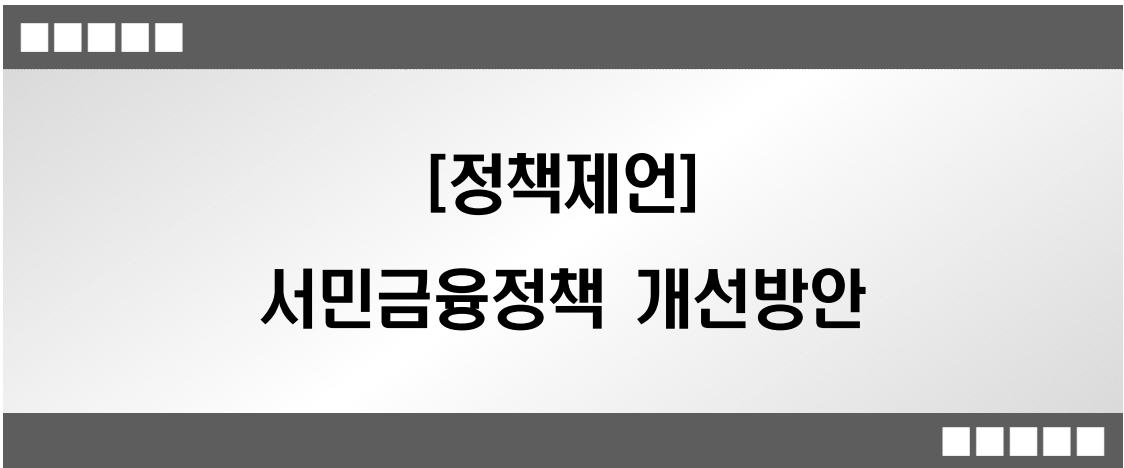
이런 것들이 '공정'의 가치이자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며, 2010년 국정감사는 이런 차원에서 '공정사회와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10

국회의원 권택기





1. 미소금융

1) 미소금융 지점설치 현황 및 대출실적

- 2009년 12월 15일 수원 팔달문시장에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처음 문을 연 이후, 9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83개 지점이 설치되었음.
 - 기업미소재단 37개, 은행미소재단 27개, 지역지점 19개
- 대출실적은 2010년 9월 30일 기준, 총 3,521명, 320억원
 - 창업자금 91.9억원, 운영·시설개선·무등록사업자금 228.1억원
 - 민간 복지사업자* 대출실적을 포함하면, 8,232명에게 523억원
 - * 민간 복지사업자(해피월드복지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 4,711명, 203억원
- 당초 목표했던 연간 2만 5,000명, 2,000억원에 비하면 15% 수준

< 미소금융 목표 대비 실적 (9월 30일 기준) >

구분	목표	실적	연간 달성률(%)
대출 수혜자	10년간 25만명 (연간 2만5000명)	3,521명	14.08%
대출 규모	10년간 2조원 (연간 2000억원)	320억원	16%
지점 수	200~300개	84개	-

* 자료 : 미소금융재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위기의 미소금융, 지역지점 활성화 필요

- 미소금융 사업은 ‘보금자리주택’, ‘든든학자금’ 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3대 서민정책 중 하나임. 이들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교육, 경제적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기획한 것임.
- ‘미소금융’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부가 주도하는 ‘친서민 금융정책’으로 G20 정상회의 회원국들도 우리 미소금융을 주목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목표대비 11% 수준인 집행실적으로는 “서민들이 제대로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우려를 표시하셨음.
-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미소금융 추진현황’ 보도자료를 통해 미소금융 실적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점 확대 및 대출기준 개선 등의 ‘제도가 안착 되어감에 따라 대출 증가 추세, 전통시장에서 일수업자들이 사라져’ 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미소금융 대출 누적액이 증가한 것은 기업·은행계 지점의 활발한 성과와 지점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총 84개의 지점 중 8월 8개, 9월 19개 설치되었음) 이지, 진정한 미소금융이라 할 수 있는 지역지점의 실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 미소금융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환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나, 기업·은행계 미소금융 지점의 경우에는 회사 이미지 때문에 대

출상환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기업과 은행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충분히 독려해야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미소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행계 지점보다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지점이 활성화 되는 것이 중요함.

< 미소금융 지점별 실적(9. 10일 기준) >

(단위 : 명,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하나미소금융	11	63,000	7	42,000	13	75,000	7	30,000	28	194,000	26	207,500	19	160,000	48	430,000	20	157,000	179	1,358,500
신한미소금융	23	134,000	26	175,400	16	139,000	12	64,600	11	107,000	34	312,000	39	477,000	41	429,000	21	156,500	223	1,994,500
우리미소금융	22	116,000	12	108,800	11	148,800	24	139,500	24	292,100	12	127,000	13	193,000	27	229,500	16	160,300	161	1,515,000
IBK미소금융	6	35,000	7	60,000	4	37,000	2	8,000	6	68,000	7	63,000	14	85,000	40	288,000	24	181,000	110	825,000
KB미소금융	17	121,000	23	156,000	35	222,600	31	250,000	21	238,000	14	146,000	38	292,500	66	583,000	36	329,800	281	2,338,900
삼성미소금융	21	169,800	18	185,000	17	161,000	23	194,000	15	187,500	37	329,600	48	458,000	84	760,100	43	380,600	306	2,825,600
현대차미소금융	8	32,000	14	87,000	17	94,000	14	69,500	6	37,000	12	68,000	77	588,500	110	1,348,600	24	320,000	282	2,644,600
포스코미소금융	0	0	9	63,000	6	37,000	15	126,000	16	201,000	14	125,000	37	367,000	42	345,000	29	283,000	168	1,547,000
롯데미소금융	1	5,000	6	50,000	3	20,000	10	75,000	4	45,000	9	145,000	9	102,000	27	220,000	15	145,000	84	807,000
LG미소금융	5	32,000	6	54,000	15	177,000	22	193,000	12	172,500	10	104,900	30	396,000	44	473,500	19	203,000	163	1,805,900
SK미소금융	3	15,000	11	123,500	10	112,000	12	72,000	23	148,000	44	414,000	51	548,800	118	1,201,570	37	399,400	309	3,034,270
지역지점 (19개)	3	15,000	106	642,600	135	981,900	72	560,000	58	438,500	38	258,500	77	553,900	125	1,047,500	38	290,000	652	4,787,900
합계	120	737,800	245	1,747,300	282	2,205,300	244	1,781,600	224	2,128,600	257	2,300,500	452	4,221,700	772	7,355,770	322	3,005,600	2,918	25,484,170

- 기업·은행계 지점은 주로 금융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회사 직원들이 파견형태로 나와 근무하고 있으나, 지역지점은 월 100만원 이하의 보수를 받는 자원봉사 상담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상담의 질도 높을 수 없고 실적이 낮을 수 밖에 없음.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들과 실적을 비교해봐도 대출금 기준 1/4 수준임.

< 미소금융 지역지점 실적 및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 실적 비교 >

	미소금융 지역지점(9월 10일 기준)	민간 마이크로크레딧*(8월말 기준)
건수	652명	4,220명
대출금	47.8억원	172억원

<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 세부 실적 >

구분	분야	복지사업자명	'10년도 사업		
			지원금	대출	
				건수	금액
소액 금융	창업	해피월드 복지재단	18	53	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0	14	6
		소상공인진흥원	-	-	-
		사회연대은행	-	-	-
		신나는조합	-	-	-
		나눔과기쁨	5	1	1
		함께일하는사람들	5	6	3
		부산복지개발원	5	-	-
		소계	43	74	19
	신용 회복	신용회복위원회	87	2,741	84
		한마음금융	13	487	13
		소계	100	3,228	97
	사회적 기업	열매나눔재단	15	10	9
		민생포럼	15	4	6
		민생경제정책연구소	10	3	3
		함께일하는재단	10	-	-
		사람사랑	10	-	-
		소계	60	17	18
	전통시장	지방자치단체	63	901	38
	합계		266	4,220	172
계		316	4,220	172	

(나) 대출상담사의 능력 제고 시급

- 미소금융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대출 상담자의 전문성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장에서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고객은 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거나 업종에 대한 분석 없이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음. 이럴 때 대출 상담자가 사업의 준비과정과 기술력을 평가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 줘야 하는데, 현재 상담하는 실무자들의 수준이 대출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줘서 사업 성공을 이끌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미소금융은 단순한 대출사업이 아니라 원금을 상환받아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눠줘야 하는 복지사업임.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미소금융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임.
-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소금융 실무자들의 전문성임. 그러나 현재의 미소금융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러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줄 것인지는 의문임.
-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관계자 의견) “무엇보다도 미소금융 실무자들이 고객인 빈곤계층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담보 소액대출이라는 형식만 갖고 나머지 기본적인 태도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견지하려 한다면 미소금융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자활 의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뢰를 갖고 대출자를 보살펴야 상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비 문제 해결책 필요

- 2010년 미소금융 지역지점 1개소에 편성된 예산은 5억 7,500만원임

< 2010년 미소금융지역지점 예산 >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사업비	500,000	- 대출재원
운영비	13,350	- 자산취득비
	36,000	- 자원봉사자(3명) 실비보상 성격의 급여
	25,500	- 기타경비(임대료, 공과금, 출장비, 회의비)
계	575,000	

- 지난 4월 7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미소금융 사업 예산 중 사무실 임대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미소금융지역지점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운영비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인건비임. 한국금융연구원이 2010. 2월 발간한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지점망을 갖추기 위해 200~300개 정도의 지역지점을 운영할 경우 연간 인건비 부담이 600억~7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현재는 저임금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종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해질 것이며,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급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하기 위한 추가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음.

- 지역지점을 300개로 확대한다는 가정하에 지점당 상담인원이 5명이면 총 1,500명이 되고, 한 명당 연봉 4천만원(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88만원의 85% 수준) 씩 준다면 인건비만 600억원이 소요됨
- 반면 미소금융 사업의 수익원을 보면 대출 평균잔액 2조원에 연리 4%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상환율이 85% 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이자수입은 680억원에 그침.
 - 이자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면 다른 운영비(출장비, 공과금, 회의비, 통신비 등) 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인 것임.
 - 대출상환율이 70%에 그칠 경우 이자수입이 560억원에 그쳐, 연간 4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옴(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의 회수율은 85% 수준인데, 이들 민간 사업에 비해 미소금융사업은 대출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수율은 더 낮을것으로 예상됨)
- 돈 나갈 곳은 많고 들어올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10년간 2조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사업초기부터 미소금융사업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 2~3년 사업을 진행했다가 흐지부지 끝낼 게 아니라면 미소금융 사업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라) 민·관 협력모델 만들 필요

- 미소금융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제도와 기준이 많이 남아있음. 이러한 시행착오의 이유

는 미소금융을 기획하고 점검하는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인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해피월드복지재단 등은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넘는 곳들이며, 그 동안의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음. 이러한 단체들과 서로 교류하고 조언을 구했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임.
- 그러나, 정부는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들과 교류하기는 커녕 작년까지 지원하던 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했음.

< '09 ~ '10 민간 복지사업자 창업 지원 실적 >

(기준 : '10. 8. 31, 단위 : 억원)

복지사업자명	'09년도 사업			'10년도 사업		
	지원금	대출		지원금	대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피월드 복지재단	15	82	15	18	53	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0	30	10	10	14	6
소상공인진흥원	40	212	40	-	-	-
사회연대은행	10	55	10	-	-	-
신나는조합	5	-	-	-	-	-
나눔과기쁨	-	-	-	5	1	1
함께일하는사람들	-	-	-	5	6	3
부산복지개발원	-	-	-	5	-	-
소계	80	379	75	43	74	19

- 이러한 축소 배경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와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9년 계약서에는 없던 제5조(대손의 예납) 조항을 삽입하였기 때문임.

< 2010년 계약서 >

<p>⑤“대손”은 “수혜자”가 “대출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출금의 손실을 말한다.</p> <p>제3조 (지원금의 교부)지원금은 배정된 금액을 한도로 2회 분할 교부하며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2회차 교부금은 1회차 교부금의 100분의 80이상을 수혜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읍의 서면 청구에 의해 교부한다.</p> <p>제4조 (지원조건 및 지원금 상환의무)①읍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지 1의 지원조건에 따라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읍은 별지1의 지원금 교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에 대하여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p> <p>제5조 (지원금의 예납)①읍은 매년 비상환 누적 지원금 잔액의 2% 이상 상환하는 금액을 갑에게 예납한다. 단, 예납시기는 지원 첫해는 교부일로부터 5일이내이며, 다음해부터 지원금 상환 연도종료일까지 첫해 1회차 교부일자 기준으로 5일 이내로 한다. ②갑은 매년 읍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연도 상환해야할 금액대비 당해연도 상환액 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첫째 지원금대비 당해연도 누적 상환금액 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제1항의 예납금을 지급한다. 단, 읍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연도 상환해야할 금액대비 당해연도 상환액 비율이 100분의 95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	--

< 2009년 계약서 >

<p>⑤“대손”은 “수혜자”가 “대출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출금의 손실을 말한다.</p> <p>제3조 (지원금의 교부)지원금은 배정된 금액을 한도로 교부하며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4조 (지원조건 및 지원금 상환의무)①읍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지 1의 지원조건에 따라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읍은 별지1의 지원금 교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에 대하여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p> <p>제5조 (지원금의 사용)읍은 지원금을 대출금의 용도로만 사용하여 하며 그 밖의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등의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 (구분계리)읍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장부를 별지 1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p> <p>제7조 (지원배상금) ①읍이 제4조에 따른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읍에게 지원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혜자의 채무이행의 지체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 정부는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들의 상환율이 85% 수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현실에도 맞지 않는 95% 수준의 상환율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들은 그동안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고,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만드는 등 교육 분야에도 강점이 있음. 미소금융의 성공을 위해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미소금융의 운영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대출상담역들에 대한 훈련 및 교육 등은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서로 협력해 간다면 미소금융을 포함한 마이크로크레딧 영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임.

2. 햇살론

1) 현황

○ 7. 26일 대출개시 후 9. 6일까지 취급실적은 총 72,347건 6,471.1억원.

< 햇살론 대출실적 >

기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전체
1일 평균 취급건수	588	1,708	2,589	3,091	3,114	2,885	2,474	2,334
1일 평균 대출액(억원)	46.7	141.3	222.2	274.1	286.7	275.3	240.1	208.8

* 자료 : 금융위원회

○ (자금용도별) 9. 6일 기준, 생계자금 59.6%(3,855억원), 운영자금 40.4%(2,612억원), 창업자금 0.1%(4억원)

(단위 : 건수, 억원)

자금용도	생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금 액(%)	3,855.4 (59.6)	2,612.1 (40.4)	3.6 (0.1)
건 수(%)	49,271 (68.1)	23,051 (31.9)	25 (0)

○ (신용등급별) 대출 건수 기준으로 신용 6~8등급이 71%로 가장 많이 대출되었고, 1~5등급은 25%, 9~10등급은 4% 순.

< 신용등급별 대출실적 >

신용등급	1~5	6~8	9~10
대출 건수(%)	18,042(24.9)	51,277(70.9)	3,006(4.2)

- 소득구간별 대출비중을 보면, 2천만원 미만인 73.6%로 대부분이고 4천만원이상 고소득자는 3.5%에 불과
 - 2천만원 미만(73.6%), 2~3천만원(17.5%), 3~4천만원(5.4%), 4~5천만원(1.9%), 5~6천만원(0.8%), 6천만원 초과(0.6%)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대부업체와 거래한 신용정보에 대한 공유 필요

- 햇살론의 목표는 제도권 금융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것임. 대출받은 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대출심사할 때 용도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고, 자금을 공급한 이후, 서민들이 다시 대부업체로 가서 고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함.
- 또, 중요한 것이 비제도권인 대부업체와 거래한 실적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것임. 대출에 대한 정보는 물론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소위 ‘우량정보’를 공유해야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소외가 완화될 것임.
 - 세계은행 산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례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량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대출 승인율이 39.8%에 불과하지만, 우량정보를 공유할 때는 승인율이 74.8%까지 확대된다는 보고가 있음.

○ 신용정보의 공유는 대출 고객의 과잉 채무를 방지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투명한 정보를 통해서 대출 금융기관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는 대부업체의 거래정보가 공유되면 저신용층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1년 이상 연체없이 상환한 정보' 등 소위 '우량정보'를 중심으로 신용정보가 공유된다면 부작용을 완화시킬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대출자의 차입현황이 서로 공유되었다면 과도한 대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가 공유되면 서민대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나) 일용직 근로자 등 대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 현재 일용직 근로자가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석달 이상 근무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는 급여통장 사본을 요구하고 있음.

< 햇살론 대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구 분			서류명칭	발급주체(방법)
근로소득	정규직	직전년도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고용주

신고자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제외)	이전 입사자	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당해년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고용주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민원 (www.nhic.or.kr)
			3. 급여통장 원본	본 인
		일용근로자	1. 근로(고용) 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고용주 고용주 본 인
근로소득 미신고자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고용주 고용주 본 인

-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이라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현금으로 일당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여통장이라는 것이 없음. 따라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저소득 약자 중에 하나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아예 대출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음.
- 대출에 대한 심사는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대출조건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놓으면, 서민들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겠다는 햇살론의 당초 취지를 살릴수 없음. 따라서 저소득·저신용층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유사명칭사례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 금융정책에 편승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대부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대표적인 예가 ‘햇빛론’ 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 ① 서민대출, 햇빛론의 자격에 관해서
- ② 저도 햇빛론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③ 햇빛론 받으려는데요... 될가요?

등의 상담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햇빛론’ 의 경우 상당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임.

[서민대출, 햇빛론의 자격에 관해서..](#) 2010.08.05 |  검색어표시

안녕하세요 . 이번에 서민대출 햇빛론이 생겼다는데/., 다름이 아니라.. 식품접객업을 하는데요.. 대출 조건이 사업자등록로 3개월 경과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 사업자등록한지는 1년이경과됐는데.. 명의변경을...

경제 > 금융 > 대출 | 답변수 1 · 추천수 0 · 조회수 3011

[저도 햇빛론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10.08.17 |  검색어표시

안녕하세요 4년차 직장인 입니다 여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햇빛론 기준이 연봉 2000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 800 대출금이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 상여금 다 포함해서 연봉이 2100입니다 저는 직장인 대출을 받을수 없는...

금융 > 대출 > 직장인신용대출 | 답변수 5 · 추천수 1 · 조회수 1276

[햇빛론에 대해서요~~](#) 2010.07.28 |  검색어표시

보험설계사만 받을수 있는 보증보험에서 대출해주는 보험을 받았는데 이거 받으면 햇빛론 못받는거 맞죠?? 농협 말고 다른은행에서도 햇빛론 못받나요?? ==>>모든 금융사에 햇살론 대출이 안되며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셔야...

금융 > 대출 > 직장인신용대출 | 답변수 4 · 추천수 0 · 조회수 1618

[햇빛론에대해서요!!](#) 2010.08.06 |  검색어표시

개인사업자가 있고 신용보증 재단에서 대출을 받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받았어요 그래도 햇빛론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신용보증 대출을 사용중이시라면 해당상품진행은 가능하시나 대출한도-사용종인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 > 대출 > 자영업자신용대출 | 답변수 1 · 추천수 0 · 조회수 802

[햇빛론 받으려는데요...될까요?](#) 2010.08.12 |  검색어표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20년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소득은 어느정도 일정하지만 소득증명이 어려운 직업이라... 그쪽으론 증명이 안되어 대출이 어려울것 같고... 친구가 하는 옷가게에서 월급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규...

금융 > 대출 > 일반인신용대출 | 답변수 4 · 추천수 1 · 조회수 1000

- 그 외에도, ‘희망대출’, ‘홀씨대출’, ‘미소대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대출 상품과 유사한 상품명으로 포장한 대부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금융당국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불법대부업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홍보에 그치지 말고 유사명칭 사용을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희망홀씨 대출

- '2조 1천억원 희망홀씨 대출... 은행들의 편법 운영 심각'

- '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층 서민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상품으로, 출범 당시 대출 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 한정하 바 있음.
-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희망홀씨 대출' 실적 2조 997억원 중 저신용층인 신용등급 7~10등급에 대출된 금액은 1조 1,887억원인 56.6%에 불과함.
- 특히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고신용층인 신용등급 1~6등급에 대출된 금액이 저신용층인 신용등급 7~10등급에 대출된 금액보다 월등하게 많아 희망홀씨 대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별 희망홀씨 대출 실적 >

(단위 : 억원, 2010년 6월말 기준)

은행명	전체금액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신용등급별		
			1~6등급	7~10등급	무등급
국민	4,478	2.05	1666.0	2812.0	0
우리	2,032.4	1.13	1112.9	919.5	0
신한	997.6	0.95	234.4	700.0	63.2
하나	537.4	2.20	107.1	51.8	378.5
기업	2,850.0	1.02	2140.0	661.0	49.0
16개 은행 전체	20997.2	2.02	8518.50	11887.30	591.4

* 자료 : 금융감독원, 신용등급은 외부신용등급 기준

- 시중은행의 희망홀씨 대출 실적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은행들이 희망홀씨 대출의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출 대상자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내부신용평가등급 1~10등급자로 한정하면서, '당행여신취급제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내부신용등급 1~9등급, 외부신용등급 1~8등급으로 제한하고 있음.
- 신한은행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내부신용등급 1~10등급인 자로 한정하면서, 외부신용등급 10등급은 제외하고 있으며, 하나은행 CSS 상품의 경우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은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승인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시중은행별 희망홀씨 대출 기준 >

은행명	상품명	대상자	제외자
국민	행복드림론	·저소득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로서 <u>내부신용평가등급 1 ~ 10 등급자</u>	·총 신용대출 30백만원 초과자 등 · <u>당행 여신취급제한대상자</u>
	KB근로자희망+대출	· <u>CB 5~10등급 해당</u> ,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자영업자 · <u>당행 여신취급제한대상자</u>
우리	우리아웃사랑대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u>내부신용등급 1~9등급자, 외부신용등급 1~8등급자</u>	·신용대출 1천만원 초과보유자 ·연체기록 과다자 ·개인회생, 파산, 신용정보등록자 등 ·부채비율 500% 이상자 등
	근로자생계신용보증	·재직기간 3개월이상 근로소득 있는 근로자 · <u>외부신용등급 5~10등급자</u>	·연체자 ·개인회생, 파산, 신용정보등록자 등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보증서 발급 불가능자

신한	신한희망대출	<u>연소득 40백만원 이하, 내부신용등급 1~10등급인 자</u>	·여신 및 카드 연체증인자 ·최근 6개월 내 60일이상 연체기록 보유자 <u>CB등급 10등급인 자</u> ·신용관리정보, 개인파산 등 정 책거절사유보유자
하나	희망하나더하기대출	6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자(25세 ~ 60세) <u>신용등급 1~9등급</u>	·여신 및 카드 연체증인자
	희망둘더하기대출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자(20세 ~ 60세) <u>신용등급 1~9등급</u>	·여신 및 카드 연체증인자
	CSS 대출	·당행 직업등급 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직업등급이 '무등급'인 자	<u>신용등급 8~10등급</u>
기업	근로자생활안정자금	<u>근로복지공단의 보증승인통지 를 받은 자</u>	·신용정보 등록자 ·여신 및 카드 연체증인 자

○ 또한, 희망홀씨 대출 연체율인 2.02%는 대부업체 연체율 13%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임을 볼 때, 은행들이 과연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대출을 해왔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2010년 6월말 기준, 은행 여신 전체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51%임.

○ 금융당국은 서민들에게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희망홀씨 대출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희망홀씨 대출을 똑바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임.

○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소외 문제는 서민금융을 외면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책임이 크므로, 희망홀씨 대출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은행들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철저히 지도해야 할 것임.

< 16개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별 희망홀씨 대출 실적 >

은행 명	신용등급별 실적														
	총계				1~3등급			4~6등급			7~10등급				무등급
	대출 금액	평균 금리	연체율	대손율	1	2	3	4	5	6	7	8	9	10	
국민	4,478	10.33	2.05	0.99	2	15	62	176	525	886	757	771	643	641	0
우리	2,032.3	8.62	1.13	0.21	14.9	72.9	144.7	204.1	293.5	382.8	303.0	230.3	229.1	157.1	0
신한	997.6	11.43	0.95	0.64	0.2	4.5	16.6	32.2	68.9	112.0	212.3	212.5	161.8	113.4	63.2
하나	537.4	12.63	2.20	1.77	3.8	9.2	13.1	16.0	32.4	32.6	23.8	16.3	9.8	1.9	378.5
씨티	643	17.51	0.64	0.25	0	0	0	0	0	0	294	215	62	71	0
외환	2.7	10.45	0.00	0.00	0.1	0.2	0.2	0.3	0.5	0.4	0.7	0.2	0.1	0	0
SC 제일	59	10.26	0.13	0.00	5	7	25	5	5	2	2	2	2	4	0
농협	7652.8	7.18	2.55	0.09	2.8	18.9	105.8	296.3	663.7	1181.1	1612.1	1679.8	1268.5	733.1	90.7
기업	2,850.0	2.83	1.02	0.00	215.0	305.0	320.0	429.0	505.0	366.0	385.0	166.0	67.0	43.0	49.0
수협	10.3	8.28	1.28	2.84	0.6	0.3	1.9	1.3	1.2	1.0	1.0	0.5	0.3	0.1	2.1
경남	175.0	9.05	0.42	0.15	2.7	6.8	10.0	17.2	28.0	35.2	41.1	22.6	9.3	2.1	.0
광주	88.8	7.62	1.33	0.36	0	0.8	2.5	5.9	16.9	19.1	14.7	10.4	7.0	3.7	7.8
대구	356.0	8.87	1.54	0.38	0	1.0	4.0	12.0	22.0	45.0	94.0	67.0	63.0	48.0	0
부산	158.0	10.31	1.35	0.03	3.0	5.3	10.3	21.2	30.5	27.4	37.5	15.6	4.8	2.3	0.1
전북	947.5	18.6	4.75	4.99	3.3	25.7	66.2	97.4	184.6	225.8	190.4	103.9	28.9	21.2	0
제주	9.4	11.95	5.45	3.77	0	0.2	0.3	0.5	0.8	0.8	1.8	1.8	1.0	2.3	0
합계	20,997	8.65	2.02	0.38	253.4	472.8	782.6	1314.5	2378.0	3317.2	3970.5	3514.9	2557.6	1844.3	591.4

3 - 1. 새희망홀씨 대출

- 은행연합회는 10월 4일 “은행권, 새로운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도입”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의 ‘희망홀씨’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 주요내용으로 ① CB사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인자, 또는 ② 신용등급 관계없이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내의 대출을 수행함.

- 대출용도는 생계자금 및 사업운영자금이며, 은행권 총 한도는 7,700 억원 수준임.

○ 은행연합회는 “신용등급이 5~6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고, 저소득자 중 제2금융권의 고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라며, “또한, 1~4등급자의 경우에도 CB사 신용등급은 우량하나 소득수준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밝히고 있음.

○ ‘새희망홀씨’ 가 은행연합회가 밝힌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임. 그러나, 지금까지 ‘희망홀씨’ 상품을 취급하면서 보여줬던 은행들의 행태를 감안할 때, ‘새희망홀씨’ 상품이 제대로 운영될 지 의문임.

1) ‘새희망홀씨’ 는 ‘희망홀씨’ 상품의 면피용

○ 앞서 밝힌 ‘희망홀씨’ 대출 실적을 다시 살펴보면, 총 대출 2조 997억 원 중 신용등급 5~6등급에 대출된 금액은 5,695.2억원으로 27.12%에 달함. 이미 하고 있는 실적을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곤란함.

< 16개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별 희망홀씨 대출 실적 >

은행 명	신용등급별 실적														
	총계				1~3등급			4~6등급			7~10등급				무등급
	대출 금액	평균 금리	연체율	대손율	1	2	3	4	5	6	7	8	9	10	
합계	20,997	8.65	2.02	0.38	253.4	472.8	782.6	1314.5	2378.0	3317.2	3970.5	3514.9	2557.6	1844.3	591.4

○ KCB(코리아크레딧뷰로)사에서 발표한 신용등급표를 보면, 전국민 중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14,267,042명에 해당하며, 비율로 보면 37.21%에 해당함.

- 대상자를 이런식으로 확대해 놓으면,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상 하고 있는 개인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 대출실적으로 넣어 마치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과 서민지원에 열심인 것처럼 홍보할 가능성이 큼.

신용등급	전국민	
	인원수(명)	구성비(%)
1등급	3,007,699	7.84%
2등급	4,821,598	12.57%
3등급	3,668,035	9.57%
4등급	4,644,115	12.11%
5등급	10,386,556	27.09%
6등급	3,880,486	10.12%
7등급	4,489,965	11.71%
8등급	2,256,843	5.89%
9등급	836,055	2.18%
10등급	354,203	0.92%
전체 합계	38,345,555	100.00%

2) 7등급 이하 저신용층 대출은 더욱 축소될 전망

○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상자가 확대하면, 일선 지점에서는 여신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신용이 높은 대출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 대출은 지

금보다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큼

- 저신용·저소득층을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자를 더욱 어려운 사람들로 축소시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함.



[간담회]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성화를 위한
미소금융 혁신방안



한국형 **MC** 모델 정립을 위한 과제

2010. 9. 30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Micro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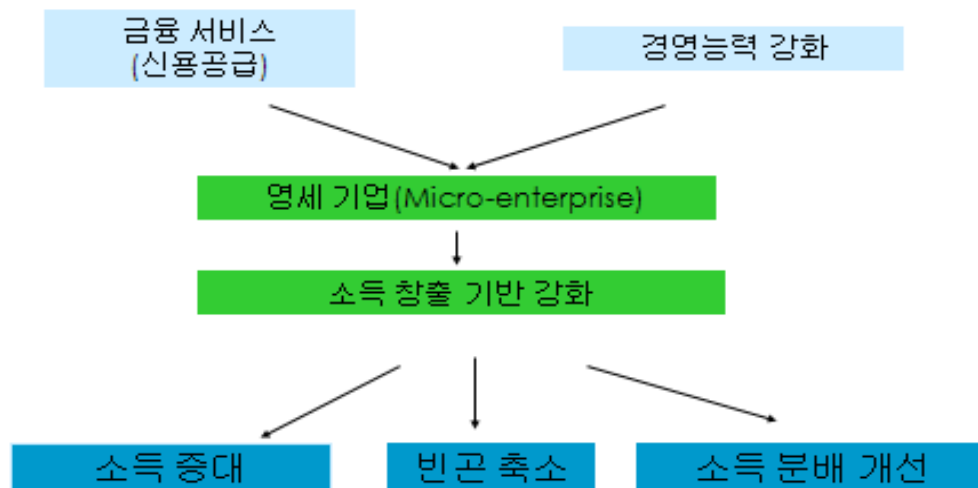
■ Microcredit (MC)

- 정의: 무담보 소액 신용
- 대출 대상: 영세자영업/가내수공업 창업/운영개선을 추구하는 저소득층
- 목적: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
- 특징: 정성적 자료를 활용한 상환 의지/능력 평가 + 사업 성공 지원을 통한 회수율 제고

■ 후진국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 선진국에도 수용

- 1970년대 중반 남미와 서남아시아에서 출현
- 소득향상과 빈곤 퇴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세계 후진국으로 확산
- 2000년대 서유럽 각국이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 정합성 제고 수단으로 수용

Microcredit



3

MC의 이론적 기반

-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 결정/관리 방식
 - 대출 결정: 담보/신용평가모형에 의존
 - ▶ 통계적 모형 - 오류의 가능성 상존
 - ▶ 두 가지 오류 - 신용능력이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판단 (type II error), 신용능력이 있는 자를 없는 것으로 판단 (type I error)
 - 채무자 관리 방식의 한계: 신용위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는 장치 미흡
 - 담보가 없거나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또는 소득창출기반이 취약한 경우 일정한 정도의 잠재적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용공급 대상에서 배제
- MC의 기본 전제: 엄격한 대출자 선정 (screening)과 대출자의 행위에 대한 관찰(monitoring)을 통하여 기존 접근법의 한계 극복 노력
 - 대출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신용평가모형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정성적 (qualitative) 자료를 활용
 - 대출 사후 관리에서 강력한 밀착 관리로 대출자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라 상환율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
 - 노동 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출 기법: 제도권 금융회사가 공급하기는 어려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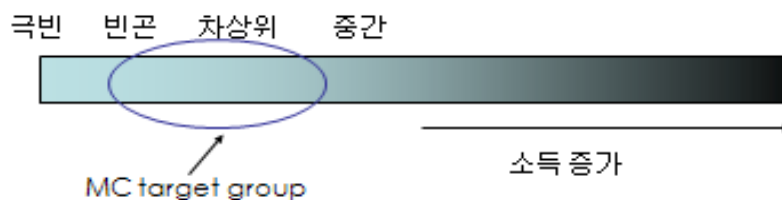
4

MC와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 한 자금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
 - 지속가능성: 외부로부터의 지원 없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
- MC의 어려움: 고비용 사업 구조
 - 대출의 원가구조: 조달비용+대손비용+행정비용
 - 높은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조달비용이 일반 대출에 비하여 높고 노동집약적인 대출관리로 인하여 행정비용 또한 높은 것이 일반적
- 가능한 해결책
 - 비용을 대출자에 이전: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자율 부과
 - 외부로부터의 **subsidy**: 사업과 관련 없는 수입원(기부, 정부지원 등) 확보
- 엄격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은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율 부과를 통하여 확보 가능: 후진국에서 주로 적용
-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외부 지원을 전제로 하는 자금순환구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

MC는 빈곤층에 대한 자금지원인가?

- MC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나 극빈층은 제외



- MC는 **차환을 전제**로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 순수한 상업적 고려만으로는 신용제공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신용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의 요소가 미
 - 상환 의지 (**will to repay**)와 상환능력 (**ability to repay**)이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시혜로 간주할 수는 없음.

MC는 후진 국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가?

- MC의 두 가지 전통적 모형
 - 남아시아 모형: 농촌기반, 가내수공업 대상, 지역사회연대강조
 - 남아 모형: 도시기반, (영세) 자영업자 대상, 상업적 원리 강조
- 선진국형 MC의 출현
 - 빈곤퇴치와 소득분배 문제 해소 목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서유럽에서 활발한 활동
- 유럽연합(EC)의 MC정책
 - 정책목표: 고용시장의 안정성 확보, 사회 통합(social cohesion)
 - 중소기업정책의 일환으로 통합
 - 기본원칙: 시장원리존중, 민간주도, 지역사회기반
 - 금융 및 MC 인프라 지원: JEREMIE, JASMINE, PROGRESS, EFSE 등

7

영세자영업은 이미 포화상태 아닌가?

- MC는 기존과 동일한 영세 자영업자 창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
 - 영세 자영업 시장에서는 구조적 저생산성과 치열한 경쟁구도로 인하여 끊임없는 진입과 퇴출이 발생
 - MC를 통하여 차별성이 없는 영세자영업 창업을 추구한다면 신규 창업자로 기존 사업자를 대체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 MC는 경쟁력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창출을 추구
 - 기존 시장 참가자보다 더 높은 경쟁력으로 무장한 신규 사업자 창출 또는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 영세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저생산성을 극복하고 고용안정성 확보와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적극적 자세 필요

8

한국형 MC 모형

- 영세 자영업 창업이나 사업개선을 추구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금 제공 및 경영 기법 지원을 통하여 **소득창출 기반 강화 지원**을 목표로 설정
 - 궁극적으로는 영세 자영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시장 안정성 제고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
 - 대출대상 사업의 규모나 성숙도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
 - ▶ 시장형 MC: 신용 애로 해소 + 시장 이자율 + 순수 민간 주도 + bankable person의 양성 추구
 - ▶ 지원형 MC: 신용 애로 해소 + 시장 이자율보다 다소 낮은 이자율 + 공공부문 지원 가미 + 시장형 MC로의 전환 추구
 - 시장원리 존중,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지역사회 주도 원칙 확립 필요
 - 중소기업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관 필요

9

민간 MC 시장

- 2000년부터 NGO 주도로 MC가 우리나라에 도입
 - 2000년 그라민 은행의 출자를 받은 신나는 조합 설립: 2008년까지 157개 공동체에 30.7억원 대출
 - 2002년 남미형 모델(개인 단위 대출, 영세 자영업 창업 자금 대출)을 채택한 사회연대은행 출범: 2009년까지 1,165건 248.8억원 대출
- 기업의 기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사업이 운영
 - 2000년대 후반부터 복지정책 차원에서 정부/지자체 자금이 공급
-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역부족
 - 자금 규모의 문제: 전적으로 기부자금/정부보조금에 의존
 -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지나치게 소규모로 한정
 - 기부자/지원자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운용: 2~3%의 극히 낮은 이자율 부과
 - MC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사업 확장에 한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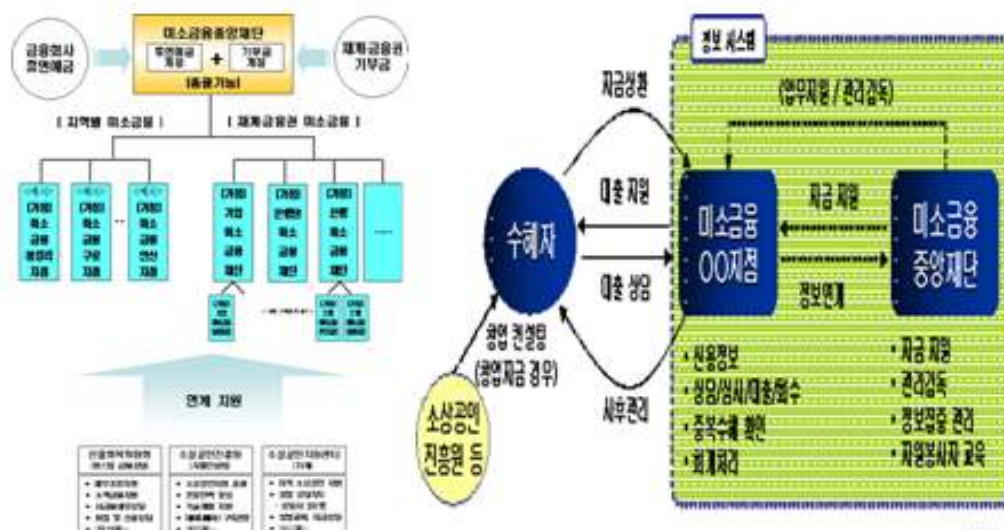
미소금융사업

- MC의 한국적 수용을 위한 모색 과정에서 발생
 - 2003년 신용카드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소비자 금융시장, 특히 서민금융시장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
 - 영세자영업 운영개선 및 창업자금 공급을 위한 통로
 - 사업 성공을 통한 회수를 제고를 추구
 - 휴면예금, 기업/금융회사 기부금을 기반



11

미소금융사업 모형



12

대출 상품

- 대출 요건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면서 신용불량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 (영세) 자영업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대출
 - 보유재산, 채무가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자
- 대출 상품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 창업임차자금 대출, 운영자금대출, 시설개선자금대출, 무등록사업자 대출
- 대출 조건
 - 금액: 500만원~5,000만원
 - 금리: 2%~4.5%
 - 대출 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1년)
- 2010년 8월 말까지 400여억원 대출

13

과제 1: 정부와 민간의 관계 정립

- 정부(공공부문)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 정립 필요
 - 정부(공공부문): 자금조달 및 사업관련 인프라 제공에 비교우위
 - ▶ MC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지원
 - ▶ 신용위험관리체계 개발 및 보급, 신용정보 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대상 금융교육 등을 지원
 - 민간: 사업수행에 비교우위
 - ▶ 대출자를 선정 및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체제 구축 필요
 - ▶ 대출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설계하고 판매

과제 2: MC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자체적인 수입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원 확보가 궁극적인 해법
 - 영업비용과 대손비용 충당 가능한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가능
 - 대손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채권 회수 및 정리를 위한 장치가 미리 강구될 필요
-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시장형 MC에 대해서는 시장 이자율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필요
- 안정적인 외부 자금원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지원형 MC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외부자금지원이 필요
 -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기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할 필요
 - 지원형 MC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시적인 기여 (contribution)가 필요

과제 3: MC의 다양성 확보

- MC 자금 수요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대출자가 요구하는 대출규모, 금리, 상환방식 등은 매우 다양
 - 대출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상환률 제고를 추구
- 대출상품 설계에서 MC 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
 - 대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출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상환률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 MC의 출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지역적/환경적/업종별 차별 없이 표준적인 조건의 상품을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구체적 방안: 기업재단의 사업방식 재검토

- 기업/금융회사 운영 미소재단 일부를 **Micro-finance (MF)** 투자펀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기업/금융회사 운영 미소재단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의 직접 사업수행 방식에서 지역 미소재단/민간 **MC**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출자, 대출, 보증 등)하는 **MF** 투자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
- 기업/금융회사의 **MC** 참여는 저렴하고 충분한 자금제공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
 - 기업/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수행하는 데 몇 가지 심각한 어려움이 존재: **MC** 전문성 미흡, 모기업의 평판에 대한 고려로 인한 느슨한 대출심사/관리, 부실 채권 회수에 소극적일 가능성
 - 비교우위 원칙에 입각한 분업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업/금융회사의 **MC** 직접 참여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
 - 성과에 기초하여 지역 미소재단/민간 **MC**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 서구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금융회사가 **MF** 투자펀드 방식으로 **MC** 부문에 진출

구체적 방안: 기업재단의 사업방식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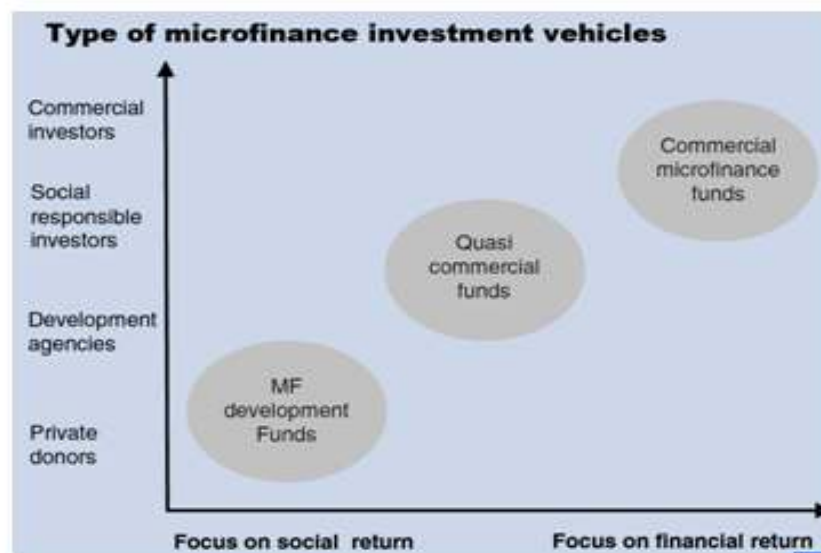
- 지역재단/민간 **MC**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안
 - **MF** 투자펀드는 설립목적,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수행 방식을 가진 **MC** 기관을 선정하여 자금을 공급
 - **MC** 기관은 **MF** 투자펀드가 제시한 원칙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업체계 구축 필요
- 기업/금융회사가 직접대출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 가능한 각종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MF 투자펀드

- MF 투자펀드 (Microfinance Investment Fund)
 -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투자자가 자금을 공급: 금융부문, 민간 기부자금, sri 계층의 민간 투자자금, 상업적 목적의 민간 투자자금
 - MC 기관에 대하여 대출, 보증 제공, 회사채 매입, 지분 투자 등 형태로 자금 공급
 - 대출자 선정은 MC 기관이 전담하며 MF 투자펀드는 개입하지 않음.
 - MF 투자펀드의 운영은 MC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수행
 - 2009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의 MF 투자펀드가 약 66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주류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금융혁신을 MF 부문에 도입한 주역: MF 대출 채권 유동화(CDO) 발행 등

19

MF 투자펀드의 다양성



20

주요 MF 투자펀드

MF 투자펀드	●자산 (USD)	MF 투자자산 (USD)	투자수익■
Oikocredit World Partnership Investments	304,662,000	80,764,000	2%
ProCredit Holding Aktiengesellschaft	110,918,700	89,181,767	5-6.5%
Calvert Community Investment Notes	80,000,000	20,000,000	3%
Dexia Microcredit Fund	51,669,512	46,334,570	5.5-7.5%
Blue Orchard Microfinance Securities	40,069,833	38,000,000	4.55-6.8%
ASN-Novib Fonds	28,421,190	9,473,730	1.20%
AXA World Funds	23,073,410	1,481,556	5-10%
Impulse Microfinance Investment Fund	15,413,875	15,413,875	4%
Triodos Fair Share Fund	14,583,596	6,983,066	2-4%
Accion Investments in Microfinance	12,969,985	12,512,329	8-10%
responsAbility Global Microfinance Fund	11,449,977	11,449,977	3.56%
ALTERFIN	11,084,244	3,628,790	6%
Partners for the Common Good	7,095,500	300,000	3%
Latin American Bridge Fund	5,340,505	1,450,000	0-2.875%
CRESUD	2,483,480	1,490,068	2.75%

단위: USD

국회의원 이성남(민주당, 정무위원회)

■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의 필요성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저소득계층의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활금융 수요는 커진데 비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움.
- 이에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을 확대하여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의 문제점

-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의 일부로 복지사업자를 지정하여 창업지원 등을 해오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간 기부를 늘려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전국 지점 설립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하고자 한 정부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함.

○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는 지점확대를 통해 단순히 자금공급량을 늘리는 것이어서는 안됨.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성패는 수요자의 성공을 통한 자활여부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달려있음.

- 자활의지가 강한 수요자를 발굴해 자금지원을 하는 한편 면밀한 사전 관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업을 성공에 이르게 하고, 이를 통해 회수된 자금으로 다시 새로운 수요자에 자금공급을 하는 순환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미소금융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1) 전문인력 부족

- 수요자의 성공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활의지와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전문적인 사업 컨설팅 등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함.
- 그러나 현재 미소금융지점을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력을 보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30개 기업재단 지점 및 19개 은행재단 지점의 대표자는 대부분 현직 CEO와 은행장이고 지역지점 대표자는 대학 교수 및 전.현직 금융기관 종사자 등임. 이들 대표자와 평균 3인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미소금융지점은 사실상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경력이 전무함.

2) 경직적인 운영구조

-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미소금융 사업은 지원대상(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출한도(500만~5천만원), 금리(2~4.5%), 상환기간(1~5년 분할

상환) 등 모든 조건을 중앙재단이 결정하고 지역지점으로 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하는 요인임. 마이크로 크레딧은 정형화된 금융상품을 단순히 대출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수요자의 다양한 조건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해 가야하는데 현행 정부주도 방식 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움.

3) 모델해저드 가능성

- 미소금융은 정부주도로 계획, 운영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값아야할 대출이라기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는 자활을 통한 상환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의 기본 조건에 반하는 것임.
- 현재의 낮은 금리가 당장은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상환의지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환의지와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수요자 별 맞춤 금리 상품 개발이 필요함.

4) 민간과의 협력 부족

- 지난 10여년간 척박한 환경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힘들게 정착시킨 민간사업자들의 그간의 노하우는 중요한 자산임.
- 그러나 미소금융의 계획, 출범, 운영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미소금융 사업은 정부주도로 수행되어 미소금융 사업에 마이크로 크레딧 민간 사업자들의 노하우가 반영될 수 없었음.

-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가는 과정과 같음. 더구나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척박한 토양에 저소득·저신용의 약한 씨앗을 심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민감하고도 어려운 작업임. 그러나 현재 미소금융 사업은 무분별하게 독한 화학비료를 쏟아 붓는 것과 같은 방식임. 이대로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토양마저 오염시켜 그나마 지금까지 어렵게 해오던 민간의 사업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음.

■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한 미소금융의 역할

- 직접사업보다는 인프라 구축과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
 - 정부주도의 지점설립과 운영은 전문성 부족과 수요자의 needs에 맞는 상품개발을 저해함으로써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이상의 이유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사례가 거의 없음.
 - 따라서 미소금융은 직접사업보다는 인프라 구축과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
에 주력해야 함.
-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제도권 금융상품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음. 일반적인 대출심사가 아닌 수요자의 자활의지를 파악해야하고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며 금융소외자 지원이라는 복지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음.
 -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임. 따라서 미소금융의 역할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함.

-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년간 쌓인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할 것임.
- 또한 경영 컨설팅을 위한 외부 전문가 pool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 역시도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외부 전문가를 양성,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함.

○ 기부문화 조성

- 우리나라는 휴면예금이라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휴면예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함. 기업의 팔을 비틀거나 한 두번의 캠페인으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함.

○ 마이크로파이낸스 투자펀드

- 상환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담보되는 등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선 후 안정적인 자금원 확보 차원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펀드 조성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는 서민금융 사업의 체계를 잡아야

-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희씨대출을 쏟아냈음. 고금리에 허덕이던 서민들과 금융소외계층에 보다 나은 조건의 금융공급을 한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함.
- 그러나 서민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그 때 그 때 필요에 맞게 급하게 상품을 내놓다 보니 시장의 금리질서가 헝클어지고 '눈먼 돈'이

라는 도덕적 해이를 낳으며,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정부는 각종 서민금융 상품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해서 차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해이 예방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등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이종수(사회연대은행 대표, 한국마이크로파이낸스협의회 공동대표)

○ 미소금융의 출범

-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모태로 하여 설립
- 재원은 기업, 금융권(휴면예금 포함)에서 출연하게 함으로써 민간기구의 형식
-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주도로 설립되었음
- 2010년 9월 6일 현재 66개의 지점. 실적은 236억원(기존 복지사업자 제외)

○ 의미

- 미소금융의 출범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재원을 대폭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했으나,
- CGAP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운영원칙'에서 언급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 CGAP의 원칙: "정부의 역할은 직접 자금을 쏟아 붓거나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정착하기 위하여 제반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지원 해야 한다"
 - *CGAP(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개발도상국 빈곤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33개 공공&민간기구의 범세계적인 글로벌 컨소시엄 네트워크 조직

으로 4가지 그룹(마이크로파이낸스 수행 개발기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을 포함한 금융기관, 정부정책입안자와 조정자들, 회계와 평가기구들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클라이언트들이 참여하고 있음.

- 민간재원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공적기구로 인식되어 있음. 휴면예금관리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고, 금융위원회나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어 준공공기관으로 간주됨.

○ 미소금융의 과제

- 미소금융은 대출의 확대와 대손을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1. 대출 확대

- 대출실적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홍보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
cf)사회연대은행: 110억원(2009년), 280억(누계)
- 마이크로파이낸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시장과 열악한 인적자본과 환경에 직면한 빈곤층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만들어 져야 함.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역재단은 물론이고 은행과 기업이 설립한 재단도 미소중앙재단의 통제와 지침 하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성을 찾아보기 힘들.
- 대출확대를 위해서는 경직된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유연하게 시장과 고객에 맞는 방식을 개발 하여야 함

2. 전문 인력의 양성

-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빈곤층 자활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 경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가 필수적임
- 엄정한 심사과정과 대상자에게 맞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 해 줌. 따라서 많은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필요
- 전문가 확보를 통한 밀착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성공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상환율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임

○ 한국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과제-미소금융의 혁신을 중심으로

1.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는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업무협조체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파트너(거버넌스)의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며 정부, 시장, 민간영역간의 상생을 전제로 하여야 함.
(미소재단은 민간 복지사업자에게 재원 공급을 시도한 바 있으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목표상환율을 95%에 설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2. 미소재단은 펀드조성 및 지원 역할에 중점

- 미소재단은 사업운영기관에게 업무의 방법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소재단은 사업의 집행보다는 기업 금융기관등에서 제공되는

기금을 조성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에게 배분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여 업무 분장을 할 필요가 있음

· 예) 방글라데시의 PKS(Palli Jarma-Sahayak Foundation), 영국의 Big Society Bank

3. Best Practice의 개발

· 지난 10년 동안 민간기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전시켜 Best Practice가 산출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Best Practice를 후발기관들이 적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음

· 예) 방글라데시의 경우 그라민은행은 Best Practice를 창출하고 있으며 PKS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펀드의 역할을 하면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4.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로서 비중 높임

· 마이크로파이낸스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함.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증진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 금융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는 추세임. 미소금융은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사회적기업의 투융자 지원체계로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한국마이크로파이낸스협의회 참여단체 명단**

(2010.9.30일 현재 22개 단체)

(사)기쁨과희망은행, (사)나눔과기쁨,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사회연대은행, (사)신나는조합, (재)열매나눔재단, (사)희망의씨앗을뿌리는사람들 사회복지은행, (재)해피월드복지재단, 강원광역자활센터, 경기광역자활센터, 대구광역자활센터, 부산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자활센터,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북지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지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이상 19개 단체 참여), 한국여성재단,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재단(이상 3개 단체 참관)

김주열 차장(우리미소금융재단)

1. 신용등급 제한

미소금융 지원대상은 저소득, 저신용계층이다. 따라서 기존 제도금융권의 금융혜택을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저신용계층 위주의 신용등급제한은 상당 부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미소금융에서는 외부신용평가기관(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7~10등급)인 경우에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이 각각 다르며, 결국 7등급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① 신용등급이 5~6등급인 경우 실제로는 제도금융권 특히 은행권에서 대출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소금융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제도금융권에서는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신청자격에 제한사항이 많음)

② 특정 개인에 대해 각각 상이한 신용등급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7등급과

5~6등급의 차이가 분별력이 존재하는지 의문시 됨.

2. 심사기간 단축

현재 일반 창업자의 경우 미소금융을 지원받기까지 보통 2주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단체의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과 비교

할 때 상당히 심사기간이 단축되어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① 창업자금의 경우 단기간내의 심사로 대출수혜자의 자활의지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재와 같이 어느 정도 심사기간이 필요함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②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은 추가적인 심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함

3. 이자율

현재 미소금융 기업재단의 운영경비 한도액이 총예산의 10%임. 즉 Pricing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 10% 이상의 대출이자율이 적정 수준임. 그러나,

미소금융의 사업특성상

높은 금리는 기존 제2금융권과 차별성이 없으며, 단지 금융지원만이

아닌 자활의지 고취를 통한 사회적 연대감 형성이 목적인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의 취지와도 다소 배치됨.

따라서 재단 자체의 자금운용 능력 향상 및 운용비 절감 등을 통해

손실폭을 최대한 감소해야 하며 지속적인 자금 조달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

4. 민간 마이크로크레딧과의 연계

기존 마이크로크레딧단체 중 사회연대은행 등의 여러 가지 경험들은 분명 현재 미소금융 사업이 벤치마킹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 또한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의 마이크로크레딧사업 경험도 미소금융사업이 수혜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들과의 긴밀한 업무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실적 부진

현재 대출 지원 전 사전 현장 방문을 포함, 대출 지원 후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미소금융 수혜자의 사업 정상진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 미소금융 현장에서 전문상담자가 대출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여 관리할 수 있는 수혜자의 수는 최소 30명에서 최대50명 정도임. 이미 대다수의 미소금융 지점들이 1인당 10 ~ 20명의 대출수혜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반기 내에 30명 이상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함.

① 미소금융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수혜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② 현재의 지점 수와 전문상담자의 수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실적거행은 자칫 미소금융 사업 전체가 도덕적 해이 및 부실화에 빠질 우려가 있음

③ 지점수 증가 및 전문상담자 증가를 통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지원실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6. 기타

① 미소금융만의 특화된 사후관리체제 도입 필요

현재 중앙재단에서 제정한 미소금융매뉴얼상의 사후관리 기준은 기존 제도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사후관리 기준을 그대로 답습한 것임. 따라서 미소금융 실정에 맞는 사후관리

체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② 다양한 상품군 형성 필요

특정한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군 개발을 통해 찾아가는 미소금융으로 발전해야 함.



이회수(사회연대은행 상임기획이사)

1.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도입배경 및 정책적 흐름과 미소금융사업

1) 한국사회에서 마이크로크레딧과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과 자활지원사업 사업의 제도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업극복운동과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의 맥락속에서 성장해오면서 2010년 현재 정부, 기업, 시민사회를 넘어 사회적 경제라는 제4섹터 패러다임으로 융합.진화발전하고 있음.

○ 마이크로크레딧은 2000년 이후 사회문제로 등장한 빈곤층 구제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등 민간부문에서 시장친화적인 신개념 복지모델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보건복지부등 정부차원에서 저소득 빈곤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자활프로그램 모델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제도정책적으로 확대됨.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기업 역시 마이크로크레딧 개념을 기업단위 영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2007년 사회적 기업법 제정과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의 사회적기업포럼활성화포럼 등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10년 현재 3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는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의 자활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잡으면서 정부, 기업, 민간단체, 학계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통합적인 사회경제 거버넌스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2) 한편 금융위원회 중심의 소액금융재단 역시 이전에는 위와같은 정책적 흐름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2009년 미소금융재단 출범을 계기로 이해당사자 참여형 협력모델보다는 정부주도형 관치금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정책서민금융정책의 확대라는 획기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효과가 성공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미소금융재단 출범이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6천억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 1372명을 대상으로 109억의 대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와 참가기업과 금융기관의 역할에 비해 정책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정부주도의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추진은 시장규모의 확대에도 중앙통제식 운영으로 인해 기업과 금융기관등 시장행위자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약하고 민간부문 역시 사업재원 축소로 지난 10년간 민간부문에서 이룩한 마이크로크레딧의 활력과 창의적인 자활지원활동이 위축되면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성공에서 중요한 요소인 네트워크와 협력가능성을 증대시켜 주는 사회자본 및 커뮤니티 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미소금융정책은 기존의 서민금융체계와는 중장기적으로 상호 충돌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부문과도 갈등과

비협조 경향이 높아져정책의 효과와 속도에서 전략적 성과를 내오지 못하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생태계와는 다른 전략적 결과를 가져옴.

2. 마이크로크레딧의 발전 방향

□ 마이크로크레딧은 국가의 경제상황, 금융상황, 국민의식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중심으로 경도되어 있어 실물부문에서의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 기능과 역할, 접근방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전개와 함께 정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임.

1)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명확한 개념과 이에 따른 지원체계

○ 마이크로크레딧은 [가난한 사람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자기고용 프로젝트에 소액을 대출해 주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명확하게 정의되는 프로그램임. 한국에 마이크로크레딧 도입 초기에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구적인 해석에만 연연해 '소액대출'을 마이크로크레딧으로 간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비교적 현재에는 마이크로크레딧을 '소액대출'과 선을 긋고 이와는 다른 용도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임

○ 이렇듯 마이크로크레딧은 금융시장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과 경영지도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금융시장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로 나누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근래에는 사회적기업이 제4섹터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기반으로 이해가 차츰 자리잡혀 가고 있는 분위기에 힘입어, 마이크로크레딧 또한 복지도 아닌 금융도 아닌 서민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마이크로크레딧이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업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과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체계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음.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의 다각적인 지원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은 고객들의 이자와 정부의 보조금과 민간의 후원금이 함께 결합되어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여기에서 정부의 보조금은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도 사회복지의 재정지출을 위탁계약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직접적인 운영비 보조금보다는 계약 내에 사업비를 포괄시키는 총괄계약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체간 역할분담-정부, 민간, 기업, 학계 연합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 마이크로크레딧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공공주도형으로 전개되어 가는 곳을 제외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운영의 효율성, 사업

의 효과성 차원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이 유리한 비영리기관을 활용하고 있음. 초기에는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이 시행되다가, 비영리기관들이 점차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독립기관 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이렇듯 마이크로크레딧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기관이 등장하여 활발하게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불구하고, 한편으로 최근 미국에서 사업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난립 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시행착오를 교훈삼고, 향후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겸비한 사업기관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또한 다양한 수행주체의 문제는 아울러 고객의 중복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사업기관의 심사 역량을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대부분 정부는 주로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들에 대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들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수행기관들을 돕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지원기관과 수행기관을 분류함으로써 전문화된 분화체계로 가는 것이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 적합한 구조라 여겨짐

○ 많은 선행경험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공은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들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고 욕구에 부응할 때 달성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이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3) 적정 이자율 -저금리가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의 핵심요인은 아니다

○ 재정지원자가 이자율을 제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구조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의 적정 이자율이 산정되어 거래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임. 이에 앞서 기관들은 전체 수입과 지출 경비를 파악하고 적정 이자율을 책정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임. 현재의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자율 운영체계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

4)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과 관리-민간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도 거버넌스체계의 전체과제임

○ 정부와의 계약, 투자지원, 후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투명한 운영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공시할 것이 요구됨

3. 미소금융 발전을 위한 제안

1) 서민금융정책과 마이크로크레딧의 정책목표가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

○ 넓은 의미에서 마이크로크레딧도 서민금융체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마이크로크레딧이 금융소외 계층들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금융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촉진, 사회통합,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대안금융정책임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서민금융정책으로 통합하여 다루는 것은 미소금융 재단이 목표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미소금융사업이 직접대출사업을 통해 시장경제내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기관과 경쟁하기 보다는 서민금융기관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도록 서민금융시스템에서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혁신적인 역할이 요구됨.

○ 반면에 마이크로크레딧은 시장과 복지의 경계선상에 있는 micro business와 social enterprise 등의 아웃사이드 경제활동 주체들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시장경제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대안적 혁신모델이니 만큼 마이크로크레딧의 정책방향은 사회적기업으로 표현되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으로 재포지션되고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방식으로 미소금융사업의 정책목표를 정립하는 것이 국책서민금융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정부가 미소금융재단을 통한 직접대출사업보다는 2009년 8월 여의도 연구소 진수희 소장이 제기한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조직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또는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처럼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기구들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변경하여 마이크로크레딧이 복지와 금융이 결합된 소득형성 자활프로그램이라는 사회적 동의구조를 확보한 속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이크로크레딧을 금융과 실물이 융합된 창업자활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을 원용한 매칭펀드 조성이나 조성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구상해 보아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마이크로크레딧 투자펀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정부에서 기부금 마련의 몫은 민간수행기관이나 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오히려 자본시장과 연계한 투자펀드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임

2) 금융위원회의 미소금융사업도 다른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이나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처럼 사회취약계층의 BOTTOM 경제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사회자본 및 커뮤니티 역량을 활용하는 거버넌스 사업모델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시대의 추세이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략임.

○ 거버넌스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기제로 특성상 기업, 정부,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및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음.

-마이크로크레딧 운영에서 핵심역량을 차지하는 네트워크와 협력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회적 자본 및 커뮤니티 역량임.

○ 사회자본이 가지는 네트워크적 속성은 구성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사회규범적 성격도 가지게 되며, 이는 마이크로크레딧이 가지는 사회적 목적을 준수하게 만드는 중요한 바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미소금융 재단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의 umbrella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포지셔닝해야 함. 즉, 수행기관이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기관의 미션에 맞는 사업

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에서 개입하고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사업운영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가령 기업과 금융의 미소금융사업도 업종의 성격이나 해당지역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해당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화해 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자율성을 열어주어야 함.

○ 또한 미소금융 재단은 미소금융 네트워크와 기존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들의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견지해야 하며, 사업위탁에서도 대출기금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포함시키는 총괄계약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민간수행기관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대부분의 복지사업자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축적된 마이크로크레딧의 민간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미소금융재단은 저소득 빈곤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지경부-중기청등에서 추는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적극적 자활복지정책에서 선택하는 거버넌스 접근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정책효과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경제 중시와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국정비전 구현과정에서 전략적 이니셔티브 역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

서민금융정책 개선방안

- 미소금융·햇살론·희망홀씨를 중심으로 -

발간일 2010년 10월 11일

편 집 국회의원 권택기

발행인 국회의원 권택기

발행처 국회의원 권택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412호

TEL (02)784-2161 FAX (02)788-3412

1. 이 자료집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자료집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 권택기의원실(TEL 784-2161, 788-220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